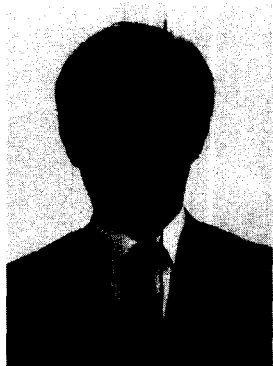


한국문학에 나타난 술



장 사 선

〈홍익대학교 국문과 교수〉

우스개 소리 한 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어떤 국문학자는 나날이 마시는 술 때문에 집 판 돈을 야금야금 써 버렸다. 이윽고 다 써버린 날 그는 취한 채, 살던 집 앞에 와서 사대질을 하며 호령하였다. “이 놈, 이제까지는 내가 내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뺏 속에 들어 있으려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화나 민속 또는 역사의 중요한 구비마다 동고동락해 온 술이며, 문학의 배면에는 더욱 깊이 스며있는 술이건만, 문학에 나타난 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이하기까지 한 일이다. 술에 대한 연구가 그 자체에 대한 천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성의 저변을 살피는 일이 된다고 보기에 그 추적의 필요성과 필연성은 배가된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술에 관한 자취들을 모으고 정리 분석해서 우리 선인들의 인성을 살피고 한국문학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초자료나마 제공해 보고자 한다. 여유와 낭만이 사라진 오늘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그 국문학자가 삼켜 버린 그리고 선인들이 들이킨 술의 궤적을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고전문학에 나타난 술

가. 피안 여행의 술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동명왕 건국신화에서 처음으로 술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하백이 세 딸을 두었으니, 맏은 유화, 다음은 환화, 끝은 위화다. 그들은 청하에서부터 용심연에 와서 놀새, 자태가 곱고 패옥소리가 쟁쟁하였다. 왕이 좌우더러 이르되 ‘얼어 비를 삼으면 아들을 둠 직하다’ 하였다. 그 여자들이 왕을 보고서는 즉시 물로 들어가 버렸다. 조우가 가로되

■ 目 次 ■

1. 고전문학에 나타난 술

가. 피안 여행의 술

나. 풍류의 술

다. 경계의 술

2. 현대문학에 나타난 술

가. 상념의 술

나. 질곡 탈출의 술

다. 여유의 술

‘대왕은 어이 궁전을 지어 저 여자들이 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 막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왕은 ‘옳다’ 하고 말채찍으로 땅을 그으니 구리쇠 집이 별안간 크게 이루어졌다. 방 한가운데서 세 자리를 베풀고 동이술을 두었더니 그 여자들이 각기 자리에 앉아 서로 권하며 마시고 크게 취하였다. 왕은 세 여자가 잔뜩 취하기를 기다려 급히 문을 닫아 막았다. 여자들은 놀라서 달아나고 유희만 왕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강의 신인 하백의 딸 유희를 아내로 삼기 위해 술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이다. 하백도 비슷한 방법을 썼으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하백이 이에 ‘이는 천제의 아들이다’ 하고 예로서 혼인을 이루고 그 딸을 거느리지 않을까 두려워 해서 음약을 베풀고 술을 내어 왕을 권하여 잔뜩 취하게 하고 그 딸과 더불어 작은 가죽가마 속에 넣어 용거에 싣고 하늘에 오르도록 하였다. 그 용거가 수궁을 미쳐 나지 못하여 왕은 7일 만에 술이 깨어 여자의 황금 비녀를 빼어 가죽가마를 찢르고 그 구멍으로 혼자 나가 하늘로 올라갔다.

동서고금을 통해 술이 남녀간에 서로를 유혹하기 위한 수단인 최음제로 쓰여지는 것은 흔한 일이고, 우리나라 술의 역사도 또한 그렇게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공무도하가〉에는 술과 죽음에 대한 최초의 인간적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에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다. 어느날 새벽 배를 손질하고 있노라니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 같은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며 강물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 아내가 따라 오면서 말려도 듣지 않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아내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난 후 물에 빠져 죽

었다. 사공은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여옥이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그 노래가 이웃에 전해졌으니, 그것이 바로 ‘공무도하가’이다.

신라시대 포석정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지만, 이 시대 문학작품 중 술에 관한 것은 거의 없다. 아마 불교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반면에 고려시대 발표된 시문들 속에는 술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유희의 일력은 인생관을 숙명적 도피적 은둔적인 것으로 만들어 갔고 술에 관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효지의 〈한국의 전통 민속주〉 연구에 의한 이시대 저서들에 등장하는 다양한 술 이름들만 보아도 당시 얼마나 술을 즐겼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한림별곡 : 황금주, 백자주, 송주, 예주, 죽엽주, 이화주, 오가피주

이규보의 시 : 이화주, 화주, 백주, 춘주, 천일주, 천금주, 지주, 초화주, 파파주, 방문주, 녹파주

파한집 : 녹주, 청주, 국화주

목은집 : 부의주, 창포주

포은집 : 창포주

동문선 : 유하주

성사달의 시 : 신평주

삼도부 : 구하주

근제집 : 포도주, 도소주

도은집 : 도소주, 탁주, 황봉주

이자량의 시 : 계향어주

고려사 : 죽엽주, 오가피주, 이화주, 예주, 황금주, 백자주, 송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산을 찾고 기적과 위안을 구하는 “삶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지식인의 술노래”라고까지 해석되는 〈청산별곡〉에는 원시

적 삶에 대한 동경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자연히 술에 대한 강한 유혹도 드러난다. 가난한 시대를 맞아 생활의 곤고에서 오는 체념이나 자위적 해학이 주된 정서를 이루면서 순간의 열락을 향한 의지에서 오는 것이리라. 특히 이 노래 마지막 연에 나오는 다음 귀절은 술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이 시 전체의 의미망과 직결된다. 즉 여기에서 술은 이미 현실을 탈출하여 원시적 삶을 향하게 도와 주는 생명수 역할을 해낸다.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술을 빚는구나.
작은 조롱박꽃 누룩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낸
들 어찌하리오.

가난하고 불우한 인생을 보내면서 이인로동의 벗들과 술마시고 시 짓기를 즐긴 임춘의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이다. 주인공 국순은 도량이 크고 재능이 있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인물이다. 그는 처사로 귀인공자와 항시 자리를 같이 하더니 요행이 등용되어서는 왕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는 죽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술이 흥취를 돋우어 주는 긍정적 측면과 인간이 술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더러는 술 때문에 타락하는 부정적 측면을 아울러 비유 풍자하고 있다. “방아와 절구 사이에서 교분을 정하고 빛에 화하여 티끌과 같이 하게 되니 혼 혼하게 찌는 기운이 점점 스며 들어서 온자한 맛이 있으므로”와 같은 귀절이나 “공경 대부 신선 방사로부터 머슴꾼 목동 오랑캐 외국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여” 또는 “내 마음을 열어 주고 내 마음을 질편하게 하는 자” 등의 귀절 등에서 보듯 술에 대한 예찬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도가 지나치자 “예법의 선비들은 그를 미워함이 원수같았다.”라는 귀절 등에서는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소년 시절부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세 차례나 사마시에 응시해 낙방하였지만 결국 이를 바탕으로 자유분방하고 웅장한 문학을 창조한 이규보의 〈국선생전〉도 〈국순전〉과 마찬가지로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이다. 주인공 국성(맑은 술을 가리킨다.)의 조상은 주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국선생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릇과 마음이 출렁출렁 만경의 물결과 같아 맑게 해도 맑지 않고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자랐으며, 총명하고 뜻이 커서 당시 도잠 유명과 사귀고 임금의 총애를 받아 벼슬도 높아졌다. “하루만 이 친구를 보지 못하면 비루함과 인색함이 싹돋는다.”라고 한 것이나 “임금의 마음이 불쾌함이 있어도 국성이 들어와 보면 임금이 비로소 크게 웃는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앞부분에서는 술의 효능을 크게 치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공적은 막힌 것을 열어 주고 경화된 것을 풀어 주는 데 있었다. 벼슬을 해서도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의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지내다가 모영(붓을 가리킴)의 탄핵을 받아 아들들은 자결하고 국선생은 탈직되어 서민으로 떨어진다. 여기에서 방자히 지낸다 함은 곧 국선생의 지나친 활약 즉 술을 지나치게 마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 다시 기용되어 도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우고 그 뒤 은퇴하여 고향에 돌아가 죽는다. 여기에서 도적이란 마음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근심을 해소하는 데는 술이 특효임을 의미했다고 보인다. 이 작품은 술과 인간과의 미묘한 관계와 인간의 성쇠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뒷부분에서는 술을 탄핵하는 내용을 의인화해서 부각시킨다. 즉 삼가지 못하면 “사람을 휘감아 상해하기를 좋아하고”, “머리를 앓고 아파하게 하며”, “백성에게 독을 끼치는 적부”라고 한 것은 국선생의 아들들을 빗대어 지나친 술을 경계한 것이다.

나. 풍류의 술

시대를 막론하고 주홍을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상상의 세계가 한없이 확대되고, 주홍 속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현실 차원을 극복하려는 환상적인 동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시 우리 문학사상 술이 가장 예찬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르에서보다 고전 시가 특히 시조에서라고 할 수 있다.

시조에서는 대체로 술을 시름을 잊게 하는 인생의 최고낙으로 예찬하고 권하는 내용, 술을 먹지 않으려 하나 어쩔 수 없이 마신다는 내용, 술을 색과 연결시켜 경계하거나 맹세하는 내용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시인문학자들은 시조를 읊조리며 술을 마시는 작시염을 최고의 풍류로 알아 왔기 때문에 시조에서는 술 예찬이 주류를 이룬다.

만경창파수로도 다 못 씻을 천고수를
일호주 가지고서 오늘이야 씻었구나
태백이 이러하므로 장취불성하닷다

생전에 부귀키는 일배주 만한 것이 없고
사후풍류는 맥상화 뿐이어나
무슨 일 이 좋은 성세에 아니 취코 어이리

위 시조는 넓고 푸른 바다물로도 씻지 못할 오래된 시름을 한 병의 술로서 씻었으니 어찌 오래도록 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는 술 예찬이고, 아래의 김천택의 시조에는 살아 귀한 것은 술 뿐이고 죽어서는 하잘 것 없는 발 두둑 꽃 뿐인데 어찌 취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설의적 권주가 내포되어 있다. 술 예찬과 향락적 인생관을 아울러 규지할 수 있다.

정철은 술을 예찬하기 위해 짐짓 이를 멀리하는 것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 후 다시 그래도 결코 멀리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

는 두 편의 짝으로 된 시조를 우리에게 남겼다. 억양법을 사용해 문답식으로 짝을 이루는 재미 있는 시조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일 이루리라 10년지이 너를 좇아
내 한 일 없어서 외다마다 하나니
이제 절교편 지어 전송한들 어떠리

10년지이는 '10年知宜'로 오래 사귄 벗 즉 술을 일컫는다. '절교편 지어 전송한다' 함은 곧 술과 절교함을 뜻한다. 이 시의 질의에 대답한 것이 다음 시조이다.

일이나 이루려 하면 처음에 사귀실까
보면 반기실새 나도 좇아 다니더니
진실로 그르다고 하시면 마르신들 어떠랴

처음부터 좋아하고 반겼던 것인데 지금 와서 그만 두지는 않겠노라는 미련을 읊고 있다.

한 잔 먹새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꺾어 산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우에 거적 덮어 줄라 매어 가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울어 예나 어옥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 숲에 가기 곧 가면 누른 해 흰달 가는 비 굵은 눈소소리 바람 불 제 누 한 잔 먹자할꼬
하물며 무덤 위의 잔나비 파람 불 제 누우친들 어떠리

술과 풍류의 시인 정철이 유교적인 세계를 떠나 노장 철학의 길에 들어 있던 무렵의 작품으로 생에 대한 무상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주가 주지를 이루고 있다.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초라하게 죽으나 화려한 상여에 만인 애통 속에 죽으나 죽고 나면 누구 하나 권주하는 사람 없으니 술을 먹고 취하자는 것이다. 이 노래는 이백이나 두보의 시를 모방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허무 애수의 정조가 있기는 하나 호연지기적 풍류가 넘치는 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시조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시조도 있다.

약산동대 여지러진 바위 꽃을 꺾어 주(籌)를 노며 무진무진 먹사이다.

인생 한 번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권할 적에 잡으시오, 백년가사인인수라도 우락(憂樂)을 충분미백년을 권할 적에 잡으시오, 우왈장사 홍문번쾌 두이주를 능음하되 이 술 한 잔 못 먹었네. 권할 적에 잡으시오.

권군갱진일배주하니 서출양관무고인을 권할 적에 잡으시오.

초장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 약산에 있는 동쪽 누각의 꽃을 꺾어 산 놓고 무궁무진 술을 먹자고 권한다. 정철의 권주가와 흡사한 부분이다. 종장에서는 사람이 저마다 백 년을 살 수 있을 지라도 근심과 즐거움이 반반인데 권할 적에 마시라고 다시 한 번 권주한다. 홍문연 때 항우가 주는 술을 다 마시고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하고 사 속의 번쾌도 이 술을 마시지 못했으니 부디 사양 말고 마시라고 재촉한다. 종장에서도 다시 한 잔 술을 권하니 마시고 유쾌하게 즐겨 보자고 끝을 맺는다.

다음과 같이 술을 유연자약할 줄 아는 선비의 풍류를 곁들인 시조도 있다.

술을 취하게 먹고 오다가 공산에 자니
뉘 날 깨우리 천지 즉 금침이로다
광약이 세우를 몰아 잠든 나를 깨우도다

술 깨어 일어나 앉아 거문고를 희롱하니
창 밖에 섰는 학이 즐겨서 넘나든다
아해야 남은 술 부어라 흥이 다시 오노매라

위의 조준의 시조에서 술을 마시고 공산에 자

는 일도 속세를 떠나려는 몸짓이지만 이 시조에 나타난 천지가 곧 비단 이불이라는 사고를 통해 철저하게 자연과 동화된 삶을 볼 수 있다. 호방한 기개가 드러난다. 아래의 시조에서는 취하여 거문고를 연주하니 신선의 경지에 들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술과 향시 좋은 짝을 이룬것은 풍류이었고, 그 풍류의 대명사가 거문고였다.

술을 즐기고 예찬하던 선비들은 술을 사후세계로까지 연장시켜 즐기려는 한계극복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들에게는 죽음도 술을 끊는 계기가 되지는 못했다.

어우하 날 죽거든 독받치집 등산에 묻어
백골이 진토되어 주준이나 만들고자
평생에 덜 먹은 맛을 다시 담아 보리라.

내가 죽거든 독 만드는 집 등산에 묻어서 술 통이나 되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평생에 다 못 먹은 술 맛을 다시 보겠노라는 뛰어난 상상력이 발휘된 시조이다. 술을 향한 지극한 염원을 읊으며 현실적 인간적 한계를 뛰어 넘으려 했다.

다. 경계의 술

〈심청전〉, 〈구운몽〉, 〈춘향전〉, 〈별주부전〉, 〈취유부벽정기〉, 〈운영전〉 등의 대표적 고전소설에서도 술은 사건 전개나 성격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

용왕이 미소띠고 이르기를 너 (심청)는 전생 초간왕의 귀한 딸로서 요지 왕모연(서왕모가 베푸는 잔치)의 술을 관장케 하였더니 네 노군성(심봉사의 전신)과 사정(私情)이 있어 그에게 술을 많이 먹여 잔치에 쓸 술을 부족하게 하매 도술천이 옥제께 청죄하니 옥제 진노하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존(도술천)의 죄가 아니고 술

을 관리하던 시녀(심청)의 죄이니 자세히 자초 지종을 조사하여 무거운 벌을 주라.”하시며 “노군성을 인간세상에 내치어 사십년을 무쾌히 지내다가 너와 더불어 부녀가 되어 네 성효(효성)를 나타내라.”하시매, 노군성은 심현(심봉사)이 되어 인간세상에 적강(유배)한 지 사십 년만에 네가 그 딸이 되어 천상의 술을 도적질해 먹은 죄로 식신(食神)을 점지하지 아니하여 십 삼 년을 빌어 먹게 하고 또 노군성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며, 규성이 빌어 먹이는 것을 받아 먹도록 천상보과를 받게 정하여 계시니 전생의 보응과 금생의 고락이 다 하늘이 정한 운수이나, 옥제 오히려 노여움을 풀지 아니하시더니...

초간왕의 딸로서 ‘규성’이란 이름을 지닌 선녀이었던 심청이 천상 잔치에서 쓰일 술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노군성이란 선관을 사사로이 사권 끝에 그에게 따로 술을 몰래 빼돌려 줌으로써 그 죄 때문에 지상계로 쫓겨 와서 각각 눈먼 아버지와 고생하는 딸로 태어 났다는 이야기이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철저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면서 아울러 천상 세계에서도 술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변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구운몽〉에서는 천상의 모범 수도자 성진이 죄를 짓고 인간계로 쫓겨 내려 와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타락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다름 아닌 술이었다.

이 때 성진이 물결을 열고 수정궁에 나아가니 용왕이 크게 기꺼워 친히 궁문밖에 나아가 맞아 상좌에 앉히고 진찬(진귀한 음식)을 갖추어 잔치하여 접대하고 손수 잔 잡아 권하거늘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의 유에 큰 경계이니 감히 파계를 못하나이다.”

용왕이 가로되

“부처의 오계에 술을 경계하였는 줄 내 어찌 모르리오마는 궁중에 쓰는 술은 인간 광약과 달라 다만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이 미란(상해서 문드러짐)치 아니하나니이다.”

성진이 왕의 괴로이 권함을 병으리왈지 못하여 연하여 세 잔을 먹고 용왕께 하직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으로 돌아 올새 뵈 아래 이르러서는 스스로 깨달으니 술 기운이 올라 낮이 달 호이거는 마음에 생각하되 “만일 낮이 붉으면 사부 고이히 여겨 책망하지 아니 하리요”하고 냇물에 나아가 옷 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우회여 낮을 씻더니 기이한 내 코를 거스러 향로 기운도 아니요, 향초 향내도 아니로되 사람의 골속에 사무쳐 정신이 진탕하여 가히 형언치 못하리라.

이 범새는 물론 팔 선녀들의 향취이다. 성진은 총명한 수도자로 육관대사의 모범 수제자이었으나 스승의 심부름으로 만났던 용왕이 권한 술에 취해 결국 선녀들을 탐하게 된다는 부분이다. 술과 여인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수도생활의 결정적 장애를 가져 온다는 상황 설정이다. 즉 금욕과 고행을 통해 득도의 길에 드는 이들에게 술은 곧 파계를 의미한다.

위의 〈심청전〉이나 〈구운몽〉이나 모두 천상세계에서 저지른 술에 관한 잘못때문에 인간 세계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만큼 술은 호색 방자한 향락 추구의 실마리가 되며 원죄적 성격을 지닌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폐의 파관으로 걸인 행세를 하며 신관사또 변학도의 잔치에 찾아가 지어 내는 다음과 같은 시는 사건을 일시에 뒤집는 계기를 만드는 술에 관한 널리 알려진 명시라 아니할 수 없다.

금동이의 맛좋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꽃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조의 역사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집인 <동문선>(1478)에는 술에 대한 폐해가 크게 지적된 '계주교서(誠酒敎書)'가 전한다.

대개 술이 화가 됨은 심히 크다. 어찌 특별히 곡식을 없애고 재물을 허비할 뿐이라. 안으로는 심지를 어지럽히고 밖으로는 위의를 잃어서 혹은 부모봉양을 폐하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며 크게는 나라를 잃고 집을 망치고 작게는 성품을 해치고 생명을 잃어 버리며 강상(綱常)을 더럽히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옛적에 신라가 포석정에서 무너졌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망한 것이 모두 술 때문이었고, 고려의 말세에 위와 아래가 서로 본떠서 술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다가 마침내 망하는 데 이르렀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으랴.

박두세의 <요로원야화기>에는 충청도에서 있었던 조선 후기의 손님 접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즉 손님을 3등급으로 나누어 손으로 턱을 만지면 가장 조잡한 상차림을 내고, 코를 만지면 중간상을, 이마를 만지면 가장 훌륭한 상차림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놓은 집안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눈치채고 장난을 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조선초부터 인조까지 250년 동안에 나온 계가의 저술을 수록한 <대동야승>에는 다음과 같이 술의 폐해를 지적한 글이 있다.

술의 근본을 근절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교사와 종교에 제사지내는 큰 예절이 있으니 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무

릇 신민들의 제사에 있어서는 의례에도 단술이 있고 명수 현주가 있어 모두 술에 대신할 수 있으니 술을 없앨 수 있습니다. 경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도 부질없이 술을 많이 마실 줄만을 알아서 술에 취하기 때문에 1년의 곡식이 반이나 술에 소비됩니다. 그것은 양식을 모자라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병이 되며 1주가 되기도 전에도 벌써 굶주림에 울면서 곡식을 팔아야만 된다고 하니 지금 백성을 해치고 재물을 해치는 것은 술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무릇 술은 누룩이 아니면 빗을 수 없고 누룩은 밀이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신은 바라옵건데 민간에 조서를 내려 밀을 심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몇해 후에는 백성들이 술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용에 쓰는 술은 경기지방에 땅을 가려 따로 밀을 심어서 일정한 조세로 바치게 하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 구비문학의 중요 유산으로 평가되는 속담에 전해 오는 술에 관한 언급도 많다. 그 중 몇 가지만을 골라 나열해 본다.

계술에 낫대기(상돛술에 벗 사귀기) : 공동의 소유물로 자기 얼굴을 세운다

금주에 누룩 흥정 : 필요없는 수고

뜨물 먹고 주정한다 : 진성을 부리는 주정, 생역지

모주 장사 열 바가지 두르듯 : 걸로만 많은 체함.

미운 놈 보려면 술장사하라.

반 잔 술에 눈물 나고 한 잔 술에 웃음 난다 : 인심이 후하여야 한다.

술 익자 채장수 간다 : 유연히 일이 잘 맞아 감.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중매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 대다.

초상 술에 권주가 부른다 : 분별없는 행동
상시에 먹은 마음이 취중에 난다.

수풀의 평은 개가 내몰고 오장의 말은 술이 내몬다.

술 받아 주고 뺨 맞는다 : 좋은 일 하고 오히려 욕을 본다

술은 초물에 취하고 사람은 홑물에 취한다 :
술은 곧 취하나 사람은 오래 사권 후에나 가까워 진다.

2. 현대문학에 나타난 술

가. 상념의 술

현대시에서는 고전시가에서 만큼 풍류나 술을 즐기는 전통이 살아 숨쉬지는 못하지만 술을 찾는 의지는 간헐적이거나 지속되고 있다. 각 시대 별로 대표적인 시들을 골라 본다.

김소월은 술의 신통한 효용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 적이 있다.

술마시면 취케 하는 다정한 술
좋은 일에도 풀무가 되고 언짢은 일에도 매듭
진 맘을 풀어 주는 시원스런 술,
나의 혈관 속에 있을 때에 술은 나외다.
되어가는 일에 부채질하고
안되어 가는 일에도 부채질합니다.

-「술」의 일절 -

소월은 술을 풀무와 부채에 비유하고 있다. 되어 가는 일에도 안되어 가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다 태우는 측면도 지니고 있지만 '일이 되어 가도록만 마시'면 괜찮다는 것이 소월의 술에 대한 생

각임을 알 수 있다.

오상순의 「한잔 술」은 술에 관한 시의 한 전법을 보인다. (이하 모든 인용 시는 시의 일부만을 인용한 것임)

나그네 주인이여 이거 어인 일
한잔 한잔 또 한잔 끝도 없거니
심산유곡옥천에 흠을 대었나
지하천척수맥에 줄기를 쳤나
바다는 말릴망정 이 술 단지사
꿈같은 나그네 길 멀기도 허다

머나먼 나그네 길에 올라 오늘도 건다가 해가 저물어 하룻 밤 객사에 묵어 면서 주인과 함께 곁에 있는 술단지들 기울이는 정겨운 사연이 배어 은은하게 나오는 시이다.

김동명의 '해양'이나 김현승의 「파도」가 의미하는 것도 잔 속에서의 그것 즉 술이다.

새빨간 유리컵에
홍근히 고인 호박 빛 액체
나는 무적함대의 사령관인 양 자못 호기로이
나의 작은 해양을 응시한다.
동그란 해안선에
넘치는 흰 거품
아하 인류 백억 해의
역사가 서렸구나 - 김동명 「술노래」일절 -

아, 여기 누가
술 위에 술을 부었나
잇발로 깨무는
흰 거품 부글부글 넘치는
춤추는 땅-바다의 글라스어.

- 김현승 「파도」일절 -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도 문학이 죽고 인생이 사라진 전쟁 직후의 삭막한 상황을 극복하며

허무의식을 치유하기 위해 한 잔 술에 탐닉하는 인간상을 부각시킨 시로서 현실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애송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조병화의 「주점 에트랑제」도 술에 대한 비슷한 심상을 제시한다.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
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
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죄없이 약한 사람들이
주점에 오가는 버릇을 배워
일과를 마친 황혼이 오면
나선형 층계를 내려 주점 에트랑제로 간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 행복되길 기도하며’ 마시는 것이 조병화의 술이다. 김종길의 「주점서장」은 해질 녘 호두나무 아래 있는 막걸리상과 여기에서 우러 나오는 인생의 상념을 형상화했다.

의미없이 웃음 지우는 나의 稀薄한 표정과
나의 표정보다는 훨씬 확실한 빈 막걸리상의
陰影만이

호두나무 무수한 잎사귀 아래
질어오는 어스름 속에 놓여 있는

아아. 그러한 일모에-

나. 질곡 탈출의 술

고전시거나 현대시에서의 술이 예찬 대상이라

면 현대소설에서의 술은 찌들고 삭막한 현실 생활의 곤고함과 자주 연결되어 나타난다.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는 이상적 인텔리가 느끼는 현실적 좌절과 불만을 술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주인공은 동경 유학을 마친 20대의 청년이요 지도적 위치에 있어야 할 몇 안되는 선택받았던 사람이다. 그에게는 선민의식과 지도자의식이 충만하다. 그러나 그는 늘상 불만에 쌓여 있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 오곤한다.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이 사회가 내게 술을 권한다고요. 이 조선사회란 것이 술을 권한다고요. 알았소? (중략)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먹게 한단 말이요.

라고 대답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는 가족보다는 국가를 위해 일을 하려 하지만 식민지 사회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절감하며, 구성원들간의 갈등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리의 다툼에 좌절을 체감하며, 그 한계를 술 주정꾼 생활로 메우려는 것이다.

한설야의 <술집>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느끼는 비인간적 부조리적 측면과 이들 병폐에서 기인하는 좌절감을 술을 통해 탈출해 보려 한 갈등의 소설이다. 한민의 아들 기준이 병이 들어 단말마의 고통을 호소하자 그는 삼동 병실에 찾아가 고해와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환자들의 병고와 신음으로 인한 아비 규환, 가족들의 찌들 대로 찌든 생존투쟁, 이에 만연된 부조리 등은 연옥 바로 그것에 다름 아닌 광경이었다. 특히 결핵성 질환으로 다리를 잘라 내야 하는 청년과 그 가족들이 다리 절단 여부를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고 이에 관여하며 자신의 건강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낀다. 그리하여 그가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술집이다. 그곳에는 정반대로 지나치리 만큼의 건강이 있고 해방감이 있을 뿐이며,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한 인식은 애초에 없다. 그 자신도 연신 술을 퍼 넣으며 감정의 자극과 무력감에서의 일시적 해방을 느끼지만 좀처럼 취하지는 않는다. 오직 좌절감에서 오는 광기만을 느낄 따름이다.

하근찬의 <간이 주점 주인>에서 간이 주점을 하는 주인은 원래 문인이었다. 그는 일제시대 국민학교 6학년 때 경성에서 발행하는 소년신문에 최우수작을 쓸만큼 학교나 지역에서 드물게 보는 수재급 문재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집안이 기울어 급사를 하면서도 소설가애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문학씨클을 만들다 잡혀가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교사, 군청 서기, 연초경작조합 과장 등을 하다가 퇴직금과 부동산을 친구에게 사기당한 후 간이 주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간이 주점도 그만두고 어느 신문 문예작품 모집에 응모를 하며 소설애의 꿈을 못 버린 채 살아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술집 주인은 문인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입신양명하는 이상적 삶이 소설가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의 늪으로 굴러 떨어진 삶으로 형상화된 것이 술집 주인이다.

최인호의 <술꾼>은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술꾼으로 등장한다. 머리는 지저분하고 손은 때에 절은 지독하게 못생긴 아이 하나가 언제나와 같이 술집마다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는다. 손님들은 이맘때 쫓으면 찾아 오는 이 아이를 놀리기를 좋아하고 그에게 술을 권한다. 아이는 거절하는 척하면서 능숙하게 받아 마신다. 오늘은 벌써 일곱 잔 이상 들이킨 셈이다. 그 아이는 돌아다니다가 술취해 쓰러진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술을 사 먹기도 한다. 그리고는 고아원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들어갈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술취한 사람 특유의 낙관에 자신을 맡겨 버린다. 그는 내일은 꼭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 소

설은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술을 먹게 하고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도덕적 세계에 들어가 결국 이를 폭로하게 한다.

이외에도 개화기소설 <청루의녀전>, 나도향의 <환희>, 계용목의 <심원>, <청춘도>, 이상의 <날개>, 김유정의 <따라지>, 김동리의 <황토기>, <역마>,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 <유실몽>, 전광용의 <영 1234>, 이범선의 <피해자>, 박경주의 <하자>, 박경리의 <사랑섬 할머니>, 선우휘의 <추적의 피날레>,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한수산의 <회선> 등의 작품들에서 기생 또는 술집 여자들(매춘부는 제외)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일남의 <진달래>에서는 술재장이 칩뿌리와 바뀌지는 소중한 교환가치를 지니며,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의 읍내 주점의 색씨 '백화'는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간다. 윤홍길의 <완장>에 등장하는 술집작부 부월이는 교장이나 사장 등 어느 인물보다도 훌륭하게 설정된 긍정적 인물이다. 황순원의 <그늘>, 계용목의 <심원>, 오정희의 <목련초> 등의 작품에서는 술집이 중요한 배경의 역할을 한다.

다. 여유의 술

고전문학에서는 주로 시가 장르에서 술이 자주 예찬되었는데 반해, 현대문학에서는 수필 장르에서 이런 전통이 이어진다. 그 대표적 예는 변영로의 <명정 40년>, 양주동의 <문주반생기>, 조지훈의 <적막한 이야기>, 그리고 59인이 쓴 공동수필집 <술> 등이다. 이 중에서도 낭만적 사고로나 유려한 필치로나 으뜸은 물론 수주 변영로의 수필집 <명정 40년>이다.

<명정 40년> (서울신문사 1953. <명정 40년 무류실태기>라고도 한다.)의 초간본은 제 1부 '명정 40년', 2부 '명정 낙수초', 3부 '남표', 4부 '명정 남빈'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2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문학사상 돌올한 자태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우선, 그 파격적 사고 구조는 낭만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문인들의 추종조차 불허한다. 그의 인생 자체가 실험의식으로 가득차 있으며, 순간순간 발휘되는 기발한 착상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범인 미답의 경지로 나아간다. 다음으로 그 해학성이나 해박성 또한 탁월하다. 특히 그 조사 능력이나 조어 실력은 우리 문학사에서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우리 말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적재적소에 취택된 그의 단어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문으로 꼽는 데 주저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이는 이는 다 아다시피 나는 호주(好酒)를 지나 탐주(耽酒)를 하였고, 그간 금주 연한을 몇해 빼놓고는 무일불취(無日不醉)하였으나 의롭지 않고 떳떳치 않은 술은 피도록 사퇴하였다. 어느 친구는 날더러 농세(弄世)를 한다지만 천만부당의 선고이다. 나는 이백의 시골(詩骨)은 타지 못하였으니 기경비상천(騎鯨飛上天)이라든가 더 줄여 말하면 일시채석강 월희(月戲)를 하는 풍류의 생활은 모조부득이요, 따라서 19세기 데카당들의 어느 강렬 자극(주로 마약류의)이 없이는 잠시도 붙이지 못하는 식의 생활도 나로서는 취할 바 아니니 위의 두 범주에 편입될 도리가 없음은 자연의 일이다. (중략) 나는 불의와 악수는 커녕 타협하여 본 적도 없음을 오십이 지난 오늘날 자허삼아 말하여 두는 동시에 어느 권세나 금력 앞에 저두평신(低頭平身)하여 본 적조차 없다. 잘 났으나 못났으나 사람이란 독왕자지(獨往自至)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런 그의 명정 인생은 어린 아이 시절부터 그 싹을 보이고 있었다.

5, 6세 되던 때의 일이다. 술은 먹고 싶고 어른한테 청했자 별무 신통이고 빚어 넣은 술독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지라 상서롭지 못하게 조숙한 나는 도음(盜飲)하기로 결의하고 술독 앞에를 다다르니 아, 그 술독 천야만야 높기도 높을사!

어린 모험가인 나에게는 도저히 등반치 못할 에베레스트 봉이었다. 그러나 앞뒤를 재량하지 못하는 만용으로 책상 깨짜 할 것 없이 포개어 놓고 기어오르다가 알프스 눈사태를 만나듯이 중도 실족, 와르르 쿵하며 쓰러져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고 호곡하는 바람에 가정(家中)이 모여들었다. 곡절을 아신 어머니는 백방으로 나를 달래시고 나 보는 면전에서 바로 등반 실패한 그 독으로부터 표주박에 술을 가득 담아 주었다. 이리하여 도주는 결국 급주(給酒)로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변영로의 취중 인생은 공초나 횡보 등의 주당들을 만나 그 절정에 이른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다시 인용해 본다.

역시 혜화동 우거에서 지낼 때였다. 어느 하룻날 바커스의 후예들인지 유령(劉伶)의 직손들인지는 몰라도 주도(酒道)의 명인들인 공초(오상순), 성재(이관구), 횡보(염상섭), 3주선이 내방하였다. (중략)

처음에는 우리는 비를 피하여 불 생의도 하였지만 인가 하나 없는 한테이고 비는 호세있게 나리어 속수무책으로 살이 부를 지경으로 흠뻑 맞았다. 우리는 비록 쪼루루 비두루마기를 하였을 망정 그때의 그 장경-산중취우의 그 장경은 필설난기였다. 우리 4인은 불기이동으로 만세를 고창하였다.

그 끝에 공초 선지식 참으로 공초식 발언을 하였다. 참으로 기상천외의 발언이었던바, 다름 아니라 우리는 모조리 옷을 찢어버리자는 것이

었다. 옷이란 위낙이 대자연과 인간 두 사이의 이간지물인 이상, 몸에 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럴 듯한 말이였다.

공초는 주저주저하는 나머지 3인에게 시범차로인지 먼저 옷을 찢어 버리였다. 남은 사람들도 천질이 그다지 비겁치는 아니하여 이에 호응하였다. 대취한 4나한들 광가난무하였다. 서양에 바커스식 조란(躁亂)이란 말이 있으나 아무리 광조한 주연이라 해도 이에 비하여서는 불급이 원의일 것이다.

우리는 어느덧 언덕 아래 소나무 그릇에 소뿔 필이 매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발언이거나 제의였던지 이제 와서 기억이 미상하나 우리는 소를 잡아타자는 데 일치하였다. 옛날에 영척이나 소를 탔다고 하지만 그 따듯 것도 소를 탔는데 우린들 못 탈 배 어디 있는 것이 곧 논리이자 동시에 성세이었다.

하여간 우리는 몸에 일사불착한 상태로 그 소들을 잡아타고 유유히 비탈길을 내리고 톨물(소나기로 해서 갑자기 생겼던)을 건너고 공자 모신 성균관을 지나서 큰 거리까지 진출하였다가 큰 봉변 끝에 장도(시중까지 오려던)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양주동의 <문주반생기>는 '유년기', '술의 장', '청춘백서', '여정초', '학창기', '교단 10년' 등의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술에 관한 언급은 역시 '술의 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장은 다시 '초음기', '문주의 벗들', '주연 학연', '종음기'의 네 글로 되어 있다. 열 살 때 처음 술을 마신 이야기에서부터 상급생들에게 <삼국지>를 강의하면서 단계마다 술을 마신 이야기, 사회나 사운 이야기, 동경에서의 사랑과 술 이야기, 나도 향이나 염상섭 이은상 문일평, 최남선, 김진섭 등과 문주를 함께한 이야기 등이 그 특유의 호연장담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강의하며 혹은 사운놀이(옛 시귀를 많이 외는 놀이의 일종)

하며 술 마신 이야기와 중국인 일본인들과의 주연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일요일 상급생들을 불러 「三國志」중 「舌戰群需」를 강의하는 席上에서는 옛날 蘇子由의 故事 - 곧 그가 史記 「張良傳」을 읽을 때는 반드시 술 한 독을 옆에 놓고 읽는데, 내려가다가 장량이 滄海力士를 구하여, 그로 하여금 박량사에서 秦始皇을 철퇴로 갈리게 하였으나 그만 '잘못 副車를 맞렸다'는 대목에서 "楷乎라 不中이로구나!"하면서 한 大白[큰 잔]을 기울이고, 다음 비교에서 욕을 참고 黃石老人에게 신을 신겨 드리는 장면에서 "君子 當如是"라 하여 또 한 잔 大白을 들이키고, 부젓가락으로 천천히 재 위에 글을 쓰며 韓信에게 齊王印 주기를 아끼지 말라 沛公에게 권하는 一段에서 또 한 잔을 引滿하고, 급기야 功成身退 萬戶侯를 사양하고 "赤松子를 따라 노닐겠노라"는 곳에서 "智者 如斯夫"로 또 한 잔을 가득히 기울여, 한 篇이 끝나매 술 한 독이 마침 다 하듯이, 나도 그때 舌戰의 한 段이 끝날 때마다 日酒 正宗한 컵 씩을 기울여 강의가 끝나매 한 되 술이 다하였다.

하룻저녁의 '국제적 술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다.-안석은 동양의 지난날 문화의 맹주 중화국의 청년 장군의 육첩 방에서. 자, 이윽고 謝杯 겸 축주를 사인자가 들게 되었는데, 한 '문제'가 주변인 나로부터 문득 제기되었다. 보아하니, 卓上에 排設된 요리-안주는 한·화·일식을 섞어 자못 '可口'한 것이 많으나, 첫째 술이 '배갈'(백간)과 '다까라'(일 소주)와 '정종'(일 청주)인데 다 뜨겁게 데워 있고, 둘째 그 마시는 연장으로 배열된 잔이 모두 과장해 말하면 도토리알만한 작은 잔들이다. 아마 화·일 양국 음주의 '미숙'은 '탕주'(따근하게 데운 술)와 '소백'(작은 잔)으로 '漫漫的' 혹은 '찌비리 찌비리'(홀짝 홀짝)로 '細呷'하여 빨아 마심이 그 음법이요 주의인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비록 반도의 주변일망정 기개만은 워낙 대(한)국의 사람, 더구나 생래의 성급한 '거호'로서 그러한 '날 술'(찬술) 아닌 '데운 술'을 더구나, 도토리알 만한 잔으로 훌쩍 훌쩍 세작할 수는 없다. 어시호 主賓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 국제적인 잔치의 주변으로 초청된 나의 이름으로 엄숙히 명하노니, 이 '데운 술'과 '도토리알 잔'을 당장에 집어치우고 그 대신 '날 술'과 '큰 그릇'을 얼른 가져올지어다!”

조지훈의 <적막한 이야기>는 그의 수필 모음집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글들이다. '주객 아니라는 성명', '술은 인정이라', '적막한 이야기', '주도유단' 등에서부터 '춘풍주담'에 이르기까지 10여개의 글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삼도주' 등의 글들이 이런 성격의 글이라 할 수 있다.

조지훈의 주량은 자기 표현대로라면 대단했던 듯하다. 거의 매일 일배주로 생활을 했고, 막걸리는 대두 한 말 정도를 깨음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객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술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흥을 좋아한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학주배(學酒輩)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도유단' 이야기는 유명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전부 열거할 필요를 못 느끼지만, 그가 나열한 주도의 18단 중에서 몇 가지만 보자.(번호는 조지훈 자신이 열거하며 붙인 것임)

2. 외주 : 술을 마시긴 마시나 술을 겁내는 사람
5. 상주 : 무슨 잇속이 있을 때만 술을 내고 마시는 사람
6. 색주 : 성생활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
10. 애주 : 술의 취미를 맛보는 사람
16. 관주 : 술을 보고 즐거워 하되 이미 마실 수는 없는 사람
18. 폐주 : 술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으로 떠나게 된 사람

이외에도 그는 술에 관한 입법론이나 단어의 중의성을 이용한 재미있는 일화인 '좌익우익' 등의 글을 쓴 바 있다.

이상으로 우리 문학 작품들에 나타난 술에 관해 살펴 보았다. 대체로 보아 운문과 낭만적 시대의 문학에서는 술이 더 예찬되었고, 산문과 현실적 시대의 문학에서는 술이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삭막한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양자 모두에서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매개물로 애용되었음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술이 현실의 질곡을 부수고 한계를 뛰어 넘는 유효한 수단이 되어 인간사의 윤택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여유와 낭만을 인간에게 되찾게 해 주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